

학생 100명 중 3명 '학폭 경험' 교실서 '언어폭력'이 가장 많아

서울시교육청, 초4~고3 전수조사 올해 피해 응답률 2.9%, 0.5%p ↑ 가해 응답률 1.1%, 0.2%p 상승

서울 초·중·고 학생 100명 중 약 3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유형 가운데는 언어폭력이 10명 중 4명꼴로 가장 많았으며,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과 인식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9%로 2024년(2.4%)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0.6%포인트, 중학교가 0.5%포인트, 고등학교가 0.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1%) 순으로 나타나 언어폭력이 여전히 가장 두드러진 문제임을 보여줬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5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복도·계단(29.8%)이 뒤를 이었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59.2%), 점심 시간(35.3%)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응답률도 증가했다. 2025년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은 1.1%로, 전년도(0.9%)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초



등학교에서 0.3%포인트, 중학교에서 0.2%포인트가 늘었고, 고등학교는 전년도와 동일했다.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 역시 7.2%로 2024년(5.9%)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7%포인트, 중학교 1.5%포인트, 고등학교 0.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목격 후 반응으로는 '피해학생에게 위로와 도움 주기(34.6%)'가 가장 많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31.2%), 주변 어른에게 알리거나 신고하기(16.7%), 가해자 말리기(16.6%) 순으로 응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 중이다.

또한 중·고등학생도 학교폭력 발생 시 당사자 동의를 거쳐 관계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

상담, 당사자 간 조정 및 화해, 관계회복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적 관점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신학기 초에는 '관계가꿈' 전문단체(38개, 633명)를 관내 191개교 1081학급에 파견해 학급 단위 관계맺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높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긍정적인 또래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아울러 학기 중에는 강의 위주의 예방교육을 넘어 학생 참여형 문화예술 공연(뮤지컬)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도입해 예방교육의 패러다임을 다양화하는 시도도 진행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경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해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등 4대분야 종합지원

2030년 공공일자리 1.2만개로 확대

서울시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힘겨운 일상이 아닌 활력 있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담은 '장애인이 활력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38만5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85%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74%는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에는 1만2000개로 대폭 늘린다. 공공기관과 복지관에서의 행정지원 같은 일반 사무보조형, 요양보호사 보조·안마서비스 등 사회서비스형, 바리스타·사서와 같은 취업연계형 등으로 다양화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늘어난다. 소규모 공동생활가정도 150여 곳에서 250곳으로 확대된다. /이현진 기자

광명시, 27일 '정원문화축제' 개최

새빛공원서 색모래 놀이 등 진행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가을 정원에서 시민이 함께 놀고 쉬며 어울릴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마련한다.

시는 오는 27일 일직동 새빛공원에서 '정원으로 가자, 정원에서 놀자!'를 주제로 '2025 제2회 광명정원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첫 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행사장 곳곳에는 ▲색모래 놀이 ▲풀피리 연주 교실 ▲정원 식물에게 이름표 달아주기 ▲네잎클로버 코인 찾기 ▲울룩볼록 거울놀이 등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특히 광명시 시민정원사들이 협동조합을 이뤄 운영하는 ▲꽃 바람개비 만들기 ▲꽃·곤충·동물 목걸이 제작 ▲디폼블럭 꽃 화분 ▲꽃 팔찌 ▲조약돌 아트 프로그램은 손으로 직접 만들며 정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파주시, 운정청소년센터 조성공사 착수

AI·드론 등 4차산업 교육공간 조성

파주시가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시설인 '운정청소년센터' 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

운정청소년센터는 운정행복센터 복지동 일부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조성된다. 기존 노인복지관이 있던 4층과 유희공간이던 7층을 비롯해 2·4·6·7층, 총 3,245㎡ 규모가 청소년 수요 맞춤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운정청소년문화의집을 확장해 추진된다. 파주시는 기존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미래 역량을 지원하는 맞춤형 공간과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센터 내부에는 인공지능(AI), 드론, 가상현실(VR), 로봇, 코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공간이 들어선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선행학습 유발 광고 2년새 10배 급증

학원·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2022년 16건→2024년 166건 적발 강경숙 의원 "특단의 대책·점검 필요"

소위 '초등 의대반' 처럼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 2152만3000원, 2023년 17억6073만 1000원, 2024년 26억738만9000원으로

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부산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을 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 2023년 60건, 2024년 166건으로 2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 2023년 183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과대학 입시 준비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은 '의대, 초등학생 때 결정

됩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초등 의대반과 같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2024년 9월 30일,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뤄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17일 (수) 음력 : 7월 26일

수도권 날씨 23~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2/25, 동두천 22/25, 파주 21/25, 서울 23/26, 양평 23/26, 인천 22/25, 수원 23/25, 용인 23/25, 평택 23/27, 가평 22/2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 NYT와 소속 기자 4명 상대로 20.68조 원 명예훼손 소송 제기 /사진 뉴시스
▲'왕실 동경' 트럼프, 오늘 영국 국빈방문...이례적 두 번째 초청

▲美,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발효...연방 관보 게재
▲"러 최대 정유공장, 우크라 공습에 핵심 시설 가동 중단"

▲中왕이, 폴란드에 "관세에 중·EU 함께 저항해야"
▲日, WTO 담당 대사 주제네바대표부에 첫 배치...美 관세 등 대응